

코로나이후 집값·주가 상승...“한국 더 가파르게 뛰었다”

한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택가격 9.3% 상승”

“국내 주식가격 코로나19 이전 대비 63.9% 급등”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실물 경제가 부진한 것과 달리 집값·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산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 정책보고서(2021년 3월)'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주택가격은 2019년 4분기 대비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6.0%), 독일(5.4%), 캐나다(4.8%), 프랑스(3.8%), 영국(3.0%)에 비해 상승률이 1.5~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주요국보다 가파른 韓 집값·주가 상승세...왜?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지만 국내 자산가격 상승세는 유독 빠르다는 평가다.

국내 주식가격 역시 지난해 3월말 대비 12월말 기준 63.8% 뛰어올라 대만(51.8%), 일본(45.1%), 미국(39.6%), 독일(38.1%), 캐나다(30.3%), 프랑스(26.3%), 홍콩(15.4%) 등보다 상승폭이 컸다.

자산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난 건 전세계 공통적으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경기회복 기대감, 경제 주체의 자산가격 상승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저

금리와 유동성 확대 기조를 지속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50%로 인하한 바 있다.

시장별로는 주택가격 상승에는 공급부족 우려, 전셋값 상승 등의 요인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감소하는 등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 집값 상승 기대에 따른 매물 감소 등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매매 수요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은이 수도권 평균 주택가격을 가격 순으로 5분위로 나눠 살펴본 결과 하위 20~40%의 수도권 중저가 주택(2분위)의 매매가격 상승폭은 2월 기준 3.0%로 상위 20%의 고가 주택(5분위)에 비해 2.2%포인트 높았다.

국내 주택가격 오름세는 글로벌 공통 요인보다는 국별 요인(71%)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시장별 자산가격 변화에 대해 글로벌 공통요인과 국별 시장요인을 실증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다.

집값이 오른 데에 유동성 확대 정책, 경기회복 기대감보다 공급부족 우려, 전셋값 상승 요인 등이 더 비중있게 작용했다는 얘기다.

주가 수익률은 글로벌 공통요인의 영향이 72%로 더 크게 나타났다. 시장별 요인 중에서는 코로나19 수혜업종의 실적개선 기대, 상장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코로나19 충격 등이 주가 상승에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불평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향후 금융 시스템과 거시 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롯데백화점, 아이큐에어 팝업스토어 오픈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8층 아이큐에어(IQ AIR) 팝업 매장에서 고객이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8일까지 본점에서 아이큐에어(IQ AIR)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주식 석달째 팔아치운 외국인...채권은 '사상 최대' 유입

2월 중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자금 28.6억달러 순유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석달째 팔아치웠지만 채권은 사상 최대 규모로 쏟아졌다.

11일 한국은행의 '2021년 2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28억6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째 '팔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출폭은 지난해 12월 21억9000만달러, 지난 1월 23억9000만달러, 2월 28억6000만달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월 중 순유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3조 2000억원 정도다.

한은은 “국내 주가가 고평가됐다

는 인식과 차익 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인의 채권자금은 89억9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채권자금은 지난 1월부터 두 달 연속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다. 채권자금이 큰 폭 유입되면서 전체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액은 61억2000만달러를 나타내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에 순유입세로 전환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확대됐다. 2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폭은 4.1원으로 한 달 전(3.8원)보다 커졌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기준

1140.3원으로 지난 1월(1118.8원)보다 1.9% 상승했다. 미 국제금리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됐다.

원·달러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는 지난 9일 기준 -0.19%로 한 달 전보다 0.10%포인트 떨어졌다. 외국인의 금리차이거래 목적에 따른 외화자금 공급에도 기관 투자자의 해외투자 목적 외화자금 수요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국가의 신용 위험도를 보여주는 외평채 5년물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은 23bp(1bp=0.01%p)로 전월(25bp)보다 소폭 내려갔다. CDS 프리미엄이 높을 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김민정기자

전남도,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확대 추진

제조·서비스업 대상 연중 수시 모집

전남도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줘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자녀행복카드는 전남도가 지난 2008년 농협과 협약을 맺고 도 내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가맹점은 전남에서 운영 중인 학원과 음식점, 미용업, 육아용품점, 유통업 등 모든 제조·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모집한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 0.2%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또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업체 현황 게시, 인증 스티커 부착 등으로 업체 홍보 효과도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보건소 또는 출산업무 담당 부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다자녀행복카드 혜택은 ▲학원 10% 할인 ▲농협 하나마트·농협 주유소 5% 할인 ▲GS칼텍스 리터당 80원 적립 ▲CGV·롯데시네마 1500원 할인 ▲교보문고·YES24 등 서적 3% 할인 ▲전남도 내 가맹점 5~20% 할인 등이다.

3월 초 기준 도내 카드 이용자는 5306명이다.

지역 가맹점은 음식점 176개, 안경점 88개, 미용실 32개, 학원 31개 등 총 426개 업체가 등록됐다.

전남도는 2022년까지 연간 신규발급 인원을 해마다 4000명씩 늘리고, 지역 가맹점도 총 4000개까지 확대키



로 했다. 카드 이용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인생에서 누리는 큰 기쁨 중 하나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며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시책을 확대해 청년이 아이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따뜻한 가족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현대차·기아, 지난해 전기동력차 판매량 19만8487대로 4위

1위 테슬라...2·3위는 폭스바겐·GM

지난해 세계 전기자동차(BEV·PHEV·FCEV) 시장에서 현대차·기아가 4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59.9% 판매량이 증가한 19만8487대를 기록하면서 2019년 7위에서 세계 단 상승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1일 발간한 '2020년 주요국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주요 정책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체코 공장에서 생산이 개시된 코나EV 및 유럽규제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수출확대 전략, 국내 시장에서의 전기화물차 판매확대 등이 현대차·기아의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

1위는 테슬라가 44만2334대 판매로 2019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전년 대비 211.1% 판매량이 증가한 폭스바겐그룹이 38만1406대 판매로 2위에 올랐다. 폭스바겐의 ID.3를 앞세워 보급형 EV와 고성능 전기차 모델

을 전방위로 투입하고 PHEV 라인업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3위는 중국 합작법인을 통해 출시한 홍콩 미니의 판매확대로 전년 대비 판매량이 134.1% 증가해 22만116대를 판매한 GM그룹이 차지했다. 19만4158대를 판매한 르노-닛산과 17만9295대를 판매한 BYD, 17만3202대를 판매한 BMW가 각각 5·6·7위에 올랐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모델별 판매량에서도 5위를 차지했다. 생산거점이 확대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5만5981대가 판매됐다. 모델별 판매량 1위는 33만6302대가 판매된 테슬라 모델3가 차지했다. 2위는 홍콩 미니(12만6603대), 3위는 르노 조에(10만1103대), 4위는 테슬라의 소형 전기 SUV(7만527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모델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34.1%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동력차는 약 294만대가 판매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침체 분위기에도 전년 대비 44.6%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중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최이슬기자

현대차 '홀쩍'...“쿠팡 공모가 35달러, 기업 가치 72조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는 쿠팡 공모가가 35달러로 책정됐다고 10일(현지 시간) 전했다.

쿠팡은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희망 공모가를 32~34달러로 제시했다. 실제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쿠팡은 총 1억200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총 42억 달러(약 4조8000억원)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WSJ·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은 공모가 기준 쿠팡 기업 가치를 600~630억 달러(약 71조8000억원)로 추정했다.

이는 2014년 상장한 중국 e커머스 기업 알리바바(1680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인 현대차(47조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쿠팡의 첫 주식 거래가 예정된 11일에는 쿠팡 주가가 급등할 거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상장 후 쿠팡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는 주요 주주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39.4%)와 그린옥스 캐피털

(19.8%), 매버릭 홀딩스(7.7%) 등이다. 개인 최대 주주는 그린옥스캐피털 창립자이자 비상임 이사인 닐 메타로, 지분 19.8%를 보유하고 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 상장 대상인 클래스A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29배 차등의결권이 부여된 클래스B 주식을 모두 갖고 있어 상장 후 76.7%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은 클래스A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김 의장이 전환하게 되면 상장 후 지분율은 비전펀드 33.1%, 그린옥스 16.6%, 닐 메타 16.6%, 김 의장 10.2% 순이 된다.

오유나기자

이달 1~10일, 수출 163억달러-수입 174억달러...둘 다 ↑

반도체·승용차 수출 호조세 유지, 연간 무역수지 53억달러 흑자

3월 들어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수출 163억 달러, 수입 1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5.2%(32억8000만 달러), 수입 31.4%(41억6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연간 수출 누계는 1091억 달러, 수입 10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5%(121억 달러)가 증가했고 수입도 11.7%(109억2000만 달러)가 늘었다.

연간 무역수지는 52억 5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달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5.2%), 승용차(22.8%), 석유제품(28.1%), 자동차 부품(15.5%), 무선통신기기(8.0%) 등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 분석에서는 중국(33.9%), 미국(21.9%), 유럽연합(49.0%), 베트남(7.5%), 일본(17.7%)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 중동(13.6%), 싱가포르(10.6%)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2.8%), 원유(16.4%), 가스(96.9%), 기계류(40.7%), 석유제품(21.2%), 정밀기기(25.9%) 등이 증가했다.

또 중국(29.8%), 유럽연합(62.0%), 미국(39.4%), 일본(17.9%), 중동(6.2%), 호주(124.0%)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늘고 베트남(4.1%)에서는 감소했다.

서선욱기자